

한·중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 비교 연구*

-한국 미래엔 본과 중국 人民音樂出版社 본을 중심으로-

학 영 광(郝永光)**

본 연구는 한국의 미래엔에서 출판된 중학교 음악교과서와 중국의 인민음악출판사에서 출판된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나타난 전통음악 내용을 분석·비교 고찰함으로써 학교교육에 전통음악을 효과적으로 전승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려 하였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양국의 전통음악 과정과 목표에 대하여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전통음악의 심미적인 체험을 중시한데 비하여, 한국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전통음악의 실천적인 체험을 중시하였다. 감상과 가창 부분에서는 한국 음악교과서가 중국 음악교과서보다 한국 국악의 체험과 전승을 중시한 경향이 있다. 양국 음악교과서에서 모두 민간음악 악곡을 중심으로 하지만 문인음악과 궁중음악 그리고 종교음악의 편성 분량이 비교적 부족하고, 특히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는 궁중음악과 종교음악이 없었다. 중국 음악교과서는 한국 음악교과서보다 전통악기를 활용한 내용이 부족한 뿐만 아니라 전통 악기를 공부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중국 교과서의 내용은 특정된 지역의 전통악곡의 내용으로 편중되어있다. 교과서 표기, 삽화 그리고 간지 부분을 본다면 한국 교과서에서는 중국 교과서보다 전통문화와 연관된 그림이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국 교과서에서 모두 전통음악이론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 주제어: 한국,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 전통음악, 전승

차 례

- I. 머리말
- II. 중국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 전승 상황
- III. 한국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 전승 상황
- IV. 한·중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 비교 분석
- V. 맺음말
- 참고문헌

* 이 논문은 2017년 7월 21일 영국 런던대학교 SOAS에서 있었던 “Music, Education and Social Inclusion Symposium”에서 발표한 “A Comparative Study of Traditional Music Culture Passed Down through Textual Analysis of Compulsory Education Music Textbooks in China and South Korea” 원고의 일부분과 2017년 8월 11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 제48회 한국음악교육 여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음악교육학회 주최 “차세대 음악교육학자 우수논문상”을 수상 논문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음악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I. 머리말

음악 교과서는 전통음악을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전승하는 주된 수단이다. 교과서에서 선별한 전통음악 내용의 분량과 성격을 통해 교과서의 전통음악 전승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로 가르침을 받아온 중학생들은 전통음악의 지식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심미적 인식이 높아진다. 따라서 중학교의 음악 교과서에서 전통음악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전통음악을 효과적으로 전승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한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며 역사와 문화의 연원, 민족의 전통적 풍속과 음악문화 현상이 서로 비슷하며, 중학교의 수업연도도 3년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각각의 독립된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주로 한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 연구와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 연구 그리고 한·중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을 살펴보면, 김해나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2014)에서는 국악의 비중은 영역별 불균형을 보이며 장동혁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국악영역 분포조사」(2017)에서는 국악영역의 수록 현황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金順愛的 「中小學 음악과정의 민족성 연구」(2009)에서 한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대한 부분에는 결과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둘째,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을 살펴보면 金順愛的 「中小學 음악과정의 민족성 연구」에서는 전통악곡의 분량을 통하여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張黎紅의 「多元文化背景下的中小學民族音樂教學研究」(2012)에서는 국악의 분량이 부족한 결과를 본다. 셋째, 한·중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을 비교함을 보면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행연구가 없다. 하지만 範孝翠의 「中韓初中音樂教材分析比較」(2012)에서 양국은 본국의 국악을 다 중시하는 결과를 간단하게 보인다.

위의 선행 연구물을 통하여 중국의 선행 연구물이 한국보다 작다고 본이지만 바로 한·중 비교 연구가 없으니 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또한, 국악과 신국악으로 분류되며 연구한 경우가 너무 적고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예의 표지, 삽화와 간지 등 자료를 언급하는 상황도 없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러한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필자

의 연구 목적을 밝히고자 한다. 즉, 본문에는 문헌분석법과 비교분석법을 통하여, 한·중 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 내용을 비교한 후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18종이 있고 중국의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11종이 있는데, 소논문의 성격에 맞게 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교과서를 하나씩으로 선택하였다. 즉, 본문에서 연구할 자료는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0호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하여 만들며 (주)미래엔에서 출판한 『중학교·음악』과 중국 교육부의 『義務教育音樂課程標準』(2011년 판본)에 의하여 만들며 인민음악출판사에서 출판한 『의무교육교과서·음악』(13-18권, 오선보본)이다.

II. 중국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 전승 상황

중국 전통음악은 음악 교과서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왕요화(王耀華, 1942~)와 두아웅(杜亞雄, 1945~)은 “중국 전통음악은 중화 민족의 고유한 방법, 민족의 고유한 형식으로 창작하여 민족의 고유한 형태와 특징을 가지는 음악이다. 하지만, 전통음악은 옛날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한 옛 악곡(전통음악이나 국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當代) 중국인들이 민족의 고유한 형식으로 창작하여 민족의 고유한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악곡(신국악이나 창작 국악)도 포함한다”(왕요화, 두아웅, 2004, p. 3)라고 서술했다.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나타난 중국 전통음악은 악곡의 창작한 시기에 따라, 국악(舊 전통음악)¹⁾과 신국악(新 전통음악)²⁾ 두 가지로 나뉜다.

중국 전통음악은 근대이전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전승된 민간음악과 문인음악,

- 1) 舊 전통음악은 근·현대 창작한 新 전통음악과 구별하는 용어이다. 한국에서 구 전통음악은 국악이라는 뜻이고, 신 전통음악은 신국악이나 창작 국악이라는 뜻이다. 여러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는 “구 전통음악”과 “신 전통음악”을 언급할 때, 이와 같은 뜻을 전달하는 “국악”과 “신국악”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1903년에 중국 新式학교 음악교육이 출현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孫繼南이 『中國近現代音樂教育史紀年』(1994, 89-90쪽)에서 “1903年沈心工(1870~1947)日本留學歸來, 在南洋公學附屬小學創設唱歌課, 並以簡譜陪歌曲, 把唱歌列入學習課程, 開展樂歌活動, 不僅轟動上海教育界, 且風行全國, 形象甚大. 同年9-10月, 曾志忞(1879~1929)發表『樂典大意』和『歌唱及教授法』, 以及五線譜與簡譜對照的『練兵』, 『遊春』, 『揚子江』, 『海戰』, 『新』和『秋蟲』六首歌曲, 爲現今中國近代最早公開發表的壹批學堂樂歌. 同年, 袁世凱(1859~1916)在天津創軍樂學隊, 這是中國最早的壹所類似軍樂學校的培養軍樂手的訓練機構”라고 말한다.

궁중음악[宮廷音樂] 그리고 종교음악으로 구성되었다(왕요화, 두아웅, 2004, p. 47).³⁾ 또한, 민간음악은 민간가악[民間歌曲]과 가무음악, 설창음악, 극음악[戲曲音樂], 기악 그리고 종합적인 악곡 여섯 가지로 구성되었다(왕요화, 두아웅, 2004, p. 54).⁴⁾ 예를 들면, 13권 교과서 48쪽에 있는 헤이룽장 민요 『하요과(哈腰挂)』는 민간음악의 민간가악에 속한다. 그러나 근·현대 전통악곡을 신국악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학당악가 이래(以來), 중국 전통음악의 특징을 가지고 새롭게 창작한 악곡이다. 교과서에서 나타난 신국악은 가악과 가무음악, 설창음악, 극음악, 기악곡 그리고 종합적인 악곡 여섯 가락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16권 교과서 46쪽에 있는 현대 경극 중 하나인 『우리는 공농 자제병이다(我們是工農子弟兵)』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악기 연주법을 배울 때, 중국 전통악기를 통하여 서양음악이나 현대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 서양 악기를 통하여 중국 전통음악을 연주한 경우들도 중국 전통문화를 전승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7권 교과서 5쪽에 있는 서양 악기 클라리넷을 통하여 허베이 민요 『모리화』를 연주한 것은 전통음악 전승에 속한다.

중국의 『의무교육 음악과정 표준』(2011년 판본)에 의하면, 중학교 음악 교육 과정은 “이해 및 감상[感受與欣賞]”, “표현(表現)”, “창작[創造]” 그리고 “음악 및 관련문화[音樂與相關文化]”의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과서에는 『의무교육 음악과정 표준』에 포함된 각 영역의 전통음악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삽화와 간지 등에도 그림이 있다. 즉, 『의무교육 음악과정 표준』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없지만 교과서에서 학년마다 학생의 심리적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전통문화의 내용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3) 민간음악은 평범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든 음악을 말하며 진정한 삶을 반영하고 감정적인 욕구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고(왕요화, 두아웅, 2004, p. 47), 민속악이라고도 한다. 문인음악은 문화적 수양을 지니고 있으며 창작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하는 전통음악을 말하는 것이고(앞의 책, p. 79), 중인음악 혹은 양반음악이라고도 한다. 궁중음악은 궁정 내부나 궁정의식에서 역대 통치자에게 연주한 음악을 의미하는 것이다(앞의 책, p. 119). 종교음악은 종교인이 연주하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는 것이다(앞의 책, p. 131).

4) 민간가악은 민요를 말하는 것이다(앞의 책, p. 55). 가무음악은 민속무용을 수반하는 노래와 기악을 말하는 것이다(앞의 책, p. 60). 설창음악은 말[說], 노래[唱]와 연출[表]을 같이 공연하는 예술이고(앞의 책, p. 61), 한국의 판소리와 같다. 극음악은 음악, 무용과 연극의 조합이다(앞의 책, p. 65).

1. “이해 및 감상” 영역

“이해 및 감상” 영역은 중학교에 음악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영역의 목표는 학생들이 음악 수업을 들으면서 음악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중학생들의 음악 감상 능력을 제고한다면 그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소양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 및 감상” 영역은 “음악 표현 요소”, “음악 성격[情緒] 및 정감(情感)”, “음악 체제[體裁] 및 형식” 그리고 “음악 특징[風格] 및 유파(流派)”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음악 표현 요소 부분은 “음악의 강약, 속도, 음색, 리듬, 박자, 선율, 음계와 화성 등 음악 요소를 들면서 음악 요소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다”(중국 교육부, 2012, p. 15)라고 한다.

또한 중국 전통음악의 “이해 및 감상” 영역에서는 연주와 표현의 속도와 강약, 악기와 창강(唱腔)⁵⁾의 음색 및 중국 전통음악이론의 음악표현을 포함한다. 그리고 음악 정서 및 정감 부분에서 “음악의 여러 가지 정감을 의식적으로 체험하면서 음악적인 용어로 말할 수 있다”(중국 교육부, 2012, p. 15)라고 한다. 결국 중학생들은 중국 전통음악의 용어로 중국 전통음악의 정감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음악 체제 및 형식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체제와 형식의 전통음악을 감상하면 곡명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 체제 및 형식이 음악 표현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중국 교육부, 2012, p. 16). 음악 특징 및 유파 부분은 민간음악을 감상하여 전통음악의 성격을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악곡을 수록한 상황이다.

<표 1> 중국 중학교 “이해 및 감상” 영역 중국 전통악곡 수록 상황 (단위: 곡)

악곡 유형		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소계	총계
국악	민간음악	민간가악	3+8	2+2	2+3	20	45
		가무음악	0+1	-	-	1	
		설창음악	-	-	9+0	9	
		극음악	0+1	0+3	0+4	8	
		기악음악	-	4+0	0+2	6	
		종합적인 악곡	-	-	-	-	

5) 중국 전통극음악의 노래 곡조이다.

악곡 유형 \ 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소계	총계
	문인음악	-	1+0	-	1	
	궁중음악	-	-	-	-	
	종교음악	-	-	-	-	
신국악	가악	4+1	1+1	1+0	8	18
	가무음악	1+0	1+0	0+2	4	
	설창음악	-	-	-	-	
	극음악	-	0+1	-	1	
	기악음악	1+1	2+1	-	5	
	종합적인 악곡	-	-	-	-	
기타음악		11+12	9+14	13+11	70	
총계		44	42	47	133	

위의 표를 보면, 중국 음악교과서의 “이해 및 감상” 영역에는 133곡의 악곡을 수록했다. 그 중 중국 전통악곡은 63곡이 있는데 “이해 및 감상” 영역 전체의 47.37%를 차지한다. 국악은 45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71.43%를 차지하며 신국악은 18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28.57%를 차지한다. 또한, 국악에는 민간음악이 44곡이 있는데 국악 전체의 97.78%를 차지한다. 그러나 문인음악이 1곡만 있는데 국악 전체의 1.82%를 차지한다. 민간악곡 중에는 민간가악 20곡이 있는데 민간악곡 전체의 45.46%를 차지한다. 또한 기악음악 6곡이 있는데 민간악곡 전체의 13.64%를 차지한다. 극음악 8곡이 있는데 민간음악 악곡 전체의 18.18%를 차지한다. 설창음악 9곡이 있는데 민간음악 악곡 전체의 20.45%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가무음악 1곡만 있는데 민간음악 악곡 전체의 2.27%를 차지 한다.

뿐만 아니라 신국악 중에 가악은 8곡이 있는데 신국악 전체의 44.44%를 차지하고, 기악곡은 5곡이 있는데 신국악 전체의 27.78%를 차지하며, 극음악은 1곡이 있는데 신국악 전체의 5.56%를 차지하고, 가무음악은 4곡이 있는데 신국악 전체의 22.22%를 차지한다.

교과서에 전통악곡의 민족 분포 상황은 한족(漢族) 음악이 14곡이고, 장족(藏族)과 혁철족(赫哲族)이 각 2곡이고, 몽골족(蒙古族)과 위구르족(維吾爾族), 카자흐족(哈薩克族), 타타르족(塔塔爾族), 달한이족(達翰爾族), 이족(彝族), 동족(侗族), 조선족(朝鮮族) 그리고 키르기스족(柯爾克孜族) 음악이 1곡씩 있다.

교과서에 전통극이 실린 양상을 살펴보면 경극 음악이 3곡이고 이인전(二人轉)과 황매희(黃梅戲), 곤곡(崑曲), 경운대고(京韻大鼓), 하오라이바오(好來寶), 좌창

(坐唱), 평현(平弦), 청음(淸音), 시조(時調), 추자(墜子), 남곡(南曲), 평극(評劇), 예극(豫劇) 그리고 월극(越劇) 음악이 1곡씩 있다.

2. “표현” 영역

“표현” 영역은 중학교 음악교육의 기초 내용이고 학생들의 음악 심미를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전통음악을 가창과 연주 그리고 종합적인 예술 공연을 하여 학생들은 전통음악을 실천할 능력과 전통악보를 읽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이 네 가지 부분을 통하여 학생들은 개인의 정감을 표현하면서 중국 전통음악의 심미 능력을 키울 수 있다.

1) 가창 부분

『의무교육 음악과정 표준』에 의하면, 중학교 음악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최소한 1곡의 중국 민요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경극이나 지방 극음악을 1곡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가창부분에서 중국 전통악곡이 수록된 양상이다.

<표 2> 중국 중학교 “가창” 부분에 중국 전통악곡 수록 상황 (단위: 곡)

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소계	총계
악곡 유형						
국악	민간가악	3+2	1+1	1+2	10	13
	가무음악	-	-	-	-	
	설창음악	-	-	-	-	
	극음악	0+1	0+1	0+1	3	
	기악음악	-	-	-	-	
	종합적인 악곡	-	-	-	-	
	문인음악	-	-	-	-	
	궁중음악	-	-	-	-	
	종교음악	-	-	-	-	
신국악	가악	2+2	1+2	1+0	8	8
	가무음악	-	-	-	-	
	설창음악	-	-	-	-	
	극음악	-	-	-	-	

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소계	총계
악곡 유형	기악음악	-	-	-	-	
	종합적인 악곡	-	-	-	-	
기타음악		4+2	4+3	4+4	21	
총계		16	13	13	42	

위의 표를 보면, 중국 음악교과서의 “가창” 부분에는 42곡의 악곡이 수록되었다. 중국 전통악곡은 21곡이 있는데 “가창” 부분 전체의 50.00%를 차지한다. 국악이 13곡이 있으며 전통악곡 전체의 61.90%를 차지한다. 신국악이 8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38.10%를 차지한다. 민간음악 악곡 중에는 민간의악 10곡이 있는데 민간음악 악곡 전체의 76.92%를 차지하고, 극음악 3곡이 있는데 민간음악 악곡 전체의 23.08%를 차지한다. 신국악의 경우 8곡이 전부 가악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소수민족의 전통악곡현황을 살펴보면 한족 음악이 3곡이고, 몽골족 음악이 2곡이고, 묘족과 위구르족, 장족, 혁철족, 고산족 음악이 1곡씩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 전통극의 상황은 경극 음악이 2곡이고 황매회 음악이 1곡만 있다.

2) 악기 부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전통음악의 악기목표는 학생들이 한 악기를 골라 악기 방법을 통하여 악곡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년마다 학생들이 두 곡이나 세 곡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다(중국 교육부, 2012, p. 19). 수업을 실제적으로 진행할 때 전통악기도 포함한다. 교과서에서 악기 부분에 나타난 전통음악은 두 가지이다. 즉, 전통 악기를 활용하는 경우와 악곡을 연주하는 경우이다.

(1) 전통 악기를 활용하는 경우

중국 음악교과서에서 16종의 악기를 다루며 그 중 중국 전통악기는 8종이 있다. 그러나 전통악기에 대해 연주방법은 배우지만 구체적으로 연주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은 공부하여야 하는 악기가 클라리넷만 있다. 7학년 학생들은 네 번 공부하고 8학년 학생들은 두 번 공부하고 9학년 학생들은 두 번 공부한다.

(2) 악곡을 연주하는 경우

악곡을 연주한 부분에서 전통 악곡을 전승한 상황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중국 전통 악기를 통하여 중국 현대 악곡과 서양 악곡을 연주한 상황과 서양 악기를 통하여 중국 전통 악곡을 연주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전통악기가 없고 클라리넷만 있다. 클라리넷을 통하여 중국 전통악곡이 1곡만 있다.

3) 종합적인 예술 공연 부분

종합적인 예술 공연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경극이나 기타 지방 전통극을 공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들을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중국 교육부, 2012, p. 20)라는 목표를 제시한다. 교과서에는 종합적인 예술 공연에 참가한 악곡이 7곡이 있다. 그중 전통악곡은 4곡이 있는데 전체의 57.14%를 차지한다. 그리고 국악과 신국악이 2곡씩 있다.

3. “창작” 영역

“창작” 영역은 학생의 상상력(想像力)과 사유(思惟) 잠재력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중요한 음악교육의 영역이다. 학생들은 중국 전통음악 요소를 통하여 전통음악을 창작하고 연습한다. “창작” 영역은 “음향과 음악을 탐색”, “즉흥적인 창작” 그리고 “창작 실천”으로 구성되어 되었다. “음향과 음악을 탐색” 부분에서 목표로 설정한 것은 학생들이 전통 악기를 통하여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즉흥적인 창편” 부분에는 학생들이 “생활적인 단어(短語)나 시구(詩句) 단구(短句)를 즉흥적으로 편창(編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중국 교육부, 2012, pp. 21-22). “창작 실천” 부분에는 중국 전통음악 재료가 창작 동기 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교과서에는 중국 전통음악 요소를 통하여 음악을 창작한 악곡 7곡을 선정하는데 국악은 2곡이다.

4. 기타

교과서에는 『의부교육 음악과정 표준』에 포함된 각 영역의 전통음악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 전통음악문화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림도 있다. 그

리고 교과서에서 전통음악 상식 내용도 있다. 이 부분은 “음악 및 상관 문화” 부분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에는 중국 전통음악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 교과서 표지와 삽화, 간지[背景畫]로 구성되었다. 중국의 음악교과서는 6권이고 그 중 중국 전통음악문화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진이 실린 표지는 4권이 있는데 전체의 66.67%를 차지한다. 교과서에는 427장의 삽화가 있다. 그 중 중국 전통음악문화를 가지고 있는 삽화가 201장이 있는데 전체의 47.07%를 차지한다. 중국 음악교과서에는 39장의 간지가 있는데 그 중 중국 전통음악문화를 가지고 있는 간지가 7장으로 있는데 전체의 17.95%를 차지한다.

또한, 교과서에는 음악 상식을 소개한 내용이 161곳이다. 그 중 중국 전통음악상식과 문화가 56곳으로 전체의 34.78%를 차지한다.

5. 소결(小結)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는 177곡으로 악곡을 수록한다. 중국 전통악곡은 80곡이 있는데 전체의 45.19%를 차지한다. 국악이 55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68.75%를 차지하지만 신국악이 25곡이 있으며 전통악곡 전체의 31.25%를 차지한다. 국악에는 민간음악이 54곡이 있는데 국악 전체의 98.18%를 차지하지만 문인음악이 1곡만 있는데 국악 전체의 1.82%를 차지한다. 민간음악 악곡 중에는 민간가악 30곡이 있는데 민간음악 악곡 전체의 55.56%를 차지하고, 기악음악 6곡이 있는데 민간음악 악곡 전체의 11.11%를 차지하고, 극음악 8곡이 있는데 민간음악 악곡 전체의 14.81%를 차지하고, 설창음악 9곡이 있는데 민간음악 악곡 전체의 16.67%를 차지하고, 가무음악 1곡만 있는데 민간음악 악곡 전체의 1.85%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신국악 중에 가악은 15곡이 있는데 신국악 전체의 60.00%를 차지하고, 기악곡은 5곡이 있는데 신국악 전체의 20.00%를 차지하고, 극음악은 1곡이 있는데 신국악 전체의 4.00%를 차지하고, 가무음악은 4곡이 있는데 신국악 전체의 16.00%를 차지한다. 그래서 위의 통계 수치를 통하여 중국 전통악곡의 비중은 교과서 전체 악곡의 절반에 가까워 분량이 비교적 풍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악곡의 유형(類型)별 분포는 고르지 않는데, 예를 들면, 국악은 민간음악악곡(98.18%)을 많이 선정하지만 민간악곡 중에는 민간가악의 비중이 크다. 그리고 신국악은 가악 악곡에 집중(60.00%)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 소개한 악기는 16가지이지만 중국 전통 악기는 8가지가 있는데 전체의 50.00%를 차지한다. 악기는 클라리넷만 있는데 중국 전통 악기는 없다.

교과서에 전통악곡(민요)의 민족 상황은 한족(漢族) 음악이 17곡이고, 몽골족(蒙古族) 음악이 4곡이고, 장족(藏族) 음악이 3곡이고, 혁철족(赫哲族)과 위구르족(維吾爾族)이 각 2곡이고, 타타르족(塔塔爾族)과 달한이족(達翰爾族), 이족(彝族), 카자흐족(哈薩克族), 동족(侗族), 조선족(朝鮮族), 묘족(苗族), 키르기스족(柯爾克孜族) 그리고 고산족(高山族) 음악은 1곡씩 있다. 따라서 민족음악 분포는 한족의 음악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교과서에 전통극의 종류를 언급한 상황은 경극 음악이 4곡이고 이인전(二人轉)과 황매희(黃梅戲), 곤곡(崑曲), 경운 대고(京韻大鼓), 하오라이바오(好來寶), 좌창(坐唱), 평현(平弦), 청음(清音), 시조(時調), 추자(墜子), 남곡(南曲), 평극(評劇), 예극(豫劇) 그리고 월극(越劇) 음악이 1곡씩 있다. 그렇기에 전통극의 종류는 경극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Ⅲ. 한국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 전승 상황

한국 전통음악은 음악교과서에서 나타난 형식이 다르다. 한국 전통음악은 국악이라고 불린다. 권오성은 『한민족음악론』에서 “한민족 음악이 수천 년 생산, 발전되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민족과는 달리 우리 민족 특유의 철학과 사상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전통과 관련된 음악을 한민족 음악(권오성, 1999, p. 32)”이라고 서술했다. 한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나타난 한국 전통악곡의 창작한 시기⁶⁾에 따라

6) 오지선이 『한국근대음악교육: 조선총독부의 음악교육정책을 중심으로』(2003. 26쪽)에서 “한국에서의 음악교육은 일본식으로 개편된 교육제도에, 일본인 교사에, 일본인이 만든 음악교과서를 가지고 1906년 후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라고 쓰였다. 그리고 1906년 제1차 학교령(1906년 8월)에 따르면, 한국의 광·공립학교에서 처음 일본과 서양 음악이론으로 편성된 『창가』와 『음악』이라는 음악 수업이 설치되었는데, 한국의 신식(新式)학교 음악교육이 출현한다고 주장한다. 이때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일본이나 서양의 음악이론을 학교교육을 통하여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신국악이 없지만 신국악을 창작한 계기(契機)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학교 음악교육을 통하여 일본과 서양에서 온 작곡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악곡을 처음으로 수용된다고 본다. 또한, 신국악과 국악 사이에는 악곡의 구체적인 작곡가를 찾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1906년부터 신국악을 창작한 동기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인다. 즉, 1906년 한국 신식(新式)학교 음악교육의 출현부터 신국악이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면, 국악과 신국악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 한국 국악은 민간음악과 문인음악, 궁중음악 그리고 종교음악으로 구성되어있다(권오성, 1999, p. 149). 민간음악은 민간가악과 민간기악, 민간무악 그리고 기예 관련의 음악 네 종류로 구성되었고 민간가악은 민요와 잡가, 단가, 판소리, 병창 그리고 구음살푸리로 구성하고 민간기악은 향제 풍류와 시나위, 산조, 풍물놀이, 사물놀이 등으로 구성되었다(권오성, 1999, pp. 150-191). 또한, 교과서에서 실제로 나타난 신국악은 가악과 기악곡, 무악 그리고 극과 관련의 음악 네 가락으로 구성되었다. 옛 전통음악과 새로운 전통음악이 공존한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한국 교과서에서 전통음악의 출현 형식은 중국 교과서와 비슷하다.

『음악과 교육과정』(2011년 판본)에 있는 “공동 교육 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음악교육 과정은 “표현”과 “감상” 그리고 “생활화”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교과서에는 『음악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각 영역의 전통음악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삽화와 간지 등에도 그림이 있다. 나아가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없지만 교과서에서 학년마다 학생의 심리적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전통문화의 내용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1. “표현” 영역

“표현” 영역은 중학교 음악교육의 중요한 내용이고 학생들이 음악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 전통음악을 능동적으로 전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표현” 영역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목소리, 악기, 신체, 그림 등을 통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악 학습에서는 가·무·악이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한국 교육과학기술, 2011, p. 8).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와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세 부분의 내용을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가창, 악기, 창작 그리고 음악요소 표현 등 형식의 방법으로 전통음악을 나타난다.

1) 가창 부분

중학교 1~3학년에는 학생들이 전통음악 요소를 이해하며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할 뿐 아니라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악의 초장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한국 교육과학기술, 2011,

pp. 5-6). 다음 표는 악곡을 수록한 상황이다.

<표 3> 한국 중학교 “가창” 부분에 한국 전통악곡 수록 상황 (단위: 곡)

악곡유형 학년		국악						신국악				기타 음악	
		민간음악				문인 음악	궁중 음악	종교 음악	가악	기악 곡	무악		극과 관련 음악
		민간 가악	민간 기악	민간 무악	기예 관련의 음악								
중학교 1~3학년		20	-	-	-	3	-	-	5	-	-	1	55
소계		23						6				55	
총계		84											

위의 표를 보면, 한국 음악교과서의 “가창” 부분에는 84곡으로 악곡이 수록되었다. 한국 전통악곡은 29곡이 있는데 “가창”부분 전체의 34.52%를 차지한다. 국악이 23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79.31%를 차지하지만 신국악이 6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20.69%를 차지한다. 국악에는 민간음악이 20곡이 있는데 국악 전체의 86.96%를 차지하고 문인음악이 3곡 있는데 국악 전체의 13.04%를 차지한다.

교과서에는 전통악곡의 지역 분포 상황은 동도 민요가 4곡(경상도 민요 4곡)있고, 제주도 민요가 2곡이고 경기도 민요가 4곡이고 남도 민요가 4곡이며 서도 민요가 2곡(황해도 민요 1곡이고 평안도 1곡)이 있다.

교과서의 민간가악에는 언급한 악곡 상황이 동요가 3곡이고 판소리가 1곡 그리고 기타 민요는 16곡이다.

2) 악기 부분

중학교 교육과정에 전통음악을 연주한 요구는 학생들이 전통음악 요소를 이해하며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고 할 뿐 아니라 전통 악곡의 특징을 살려 개성 있게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한국 교육과학기술, 2011, p. 6). 수업을 실제로 진행할 때 교과서에서 연주 부분에는 나타난 전통 음악이 두 가지이다. 즉, 정통 악기를 활용하는 경우와 악곡을 연주하는 경우이다.

(1) 전통 악기를 활용하는 경우

한국 음악교과서에서 98종의 악기를 다루며 그 중 한국 전통악기가 35종이 있

는데 35.71%를 차지한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악기⁷⁾는 13종이 있는데 그중 전통악기가 7종이 있으니 전체의 53.85%를 차지한다. 장고와 소금은 각각 중학교 삼년동안 두 번 공부하고 팽과리, 징, 북, 단소 그리고 가야금은 각각 한 번씩 공부한다.

(2) 악곡을 연주하는 경우

악곡을 연주한 부분에서 전통 악곡을 전승한 상황은 두 가지가 있다. 즉, 한국 전통악기를 통하여 한국 현대 악곡과 서양악곡을 연주한 상황과 서양악기를 통하여 한국 전통악곡을 연주한 상황이다. 아래의 표는 악곡을 수록한 양상이다.

<표 4> 한국 중학교 “악기” 부분에 전통악곡 수록 양상 (단위: 곡)

악곡유형 학년	국악							신국악				기타 음악
	민간음악				문인 음악	궁중 음악	종교 음악	가악	기악 곡	무악	극과 관련 음악	
	민간 가악	민간 기악	민간 무악	기예 관련의 음악								
중학교 1~3학년	4	3	-	-	-	1	-	-	2	-	-	2
소계	8							2				2
총계	12											

위의 표를 보면, 한국 음악교과서의 “악기” 부분에는 12곡으로 악곡을 선용한다. 한국 국악이 8곡이 있는데 “악기” 부분 전체의 66.66%를 차지하지만 신국악과 기타 악곡이 각 2곡이 있는데 각 전체의 16.67%를 차지한다.

3) 창작 부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전통음악 표현의 목표는 학생들이 시, 소설, 설화 등의 한 부분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연극, 영상, 춤 등의 한 장면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한국 교육과학기술, 2011, p. 16). 또한, “국악 만들기에서는 주로 국악기를 이용하여 국악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한다”(한국 교육과학기술, 2011, p. 9). 아래의 표는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창작 부분에 악곡을 수록한 양상이다.

7) 교과서에서는 전통악기를 배우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60쪽에 전통악기-소금에 대하여 공부할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금이 공부하여야 할 악기인 것이다.

<표 5> 한국 중학교 “창작” 부분에 한국 전통악곡 수록 양상⁸⁾ (단위: 곡)

악곡유형 학년	국악							신국악				기타 음악
	민간음악				문인 음악	궁중 음악	종교 음악	가악	기악 곡	무악	극과 관련 음악	
	민간 가악	민간 기악	민간 무악	기예 관련의 음악								
중학교 1~3학년	2	2	-	-	-	-	-	-	1	-	-	16
소계	4							1				16
총계	21											

위의 표를 보면, 한국 음악 교과서의 “창작” 부분에는 12곡으로 악곡을 수록했다. 한국 전통악곡이 5곡이 있는데 “창작” 부분 전체의 23.81%를 차지한다. 국악이 4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80.00%를 차지하지만 신국악이 1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20.00%를 차지한다.

4) 음악 요소 및 개념 부분

표현과 감상 영역에서 “음악 요소 및 개념”을 공부한 내용은 배웠기에 학생들은 음악 요소를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으며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장단(중모리, 엇모리, 가악), 장단의 세, 말붙임새, 여러 지역의 토리, 여러 가지 시김새, 한배의 형식과 한배의 변화(한국 교육과학기술, 2011, p. 7)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악곡을 수록한 양상이다.

<표 6> 한국 중학교 “음악 요소 및 개념” 부분에 한국 전통악곡 수록 양상 (단위: 곡)

악곡유형 학년	국악							신국악				기타 음악
	민간음악				문인 음악	궁중 음악	종교 음악	가악	기악 곡	무악	극과 관련 음악	
	민간 가악	민간 기악	민간 무악	기예 관련의 음악								
중학교 1~3학년	5	-	-	-	-	-	-	-	-	-	-	1
소계	5							-				1
총계	6											

위의 표를 보면, 한국 음악교과서의 “음악 요소 및 개념” 부분에는 6곡의 악곡

8) 교과서에서는 “음악 만들기”라는 내용이 매 과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전통 음악을 새로 창작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132쪽에 “세마치장단의 변형 장단 만들기” 중에 “아리랑”을 인용하였다.

을 수록하고 있고, 한국 전통악곡이 5곡이 있는데 “음악 요소 및 개념” 부분 전체의 83.33%를 차지하고 있다.

2. “감상” 영역

“감상” 영역은 중학교 음악과정에서 음악에 대하여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듣고 세계 각 민족의 음악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민족의 음악문화의 특징을 잘 체험과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 민족 음악에 대하여 정확하게 감상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만든다. 전통음악을 감상할 때에는 전통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음악 감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간보와 구음보 등을 활용한다(한국 교육과학기술, 2011, p. 9). 또한 역사와 사회적인 맥락에서 시대에 따른 전통음악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한국 교육과학기술, 2011, p. 17). 그렇기에 “감상” 영역은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와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전통음악을 공부한 내용이 이 두 부분에 있다. 아래의 표는 감상영역에서 악곡을 수록한 양상이다.

<표 7> 한국 중학교 “감상” 부분에 한국 전통악곡 수록 양상 (단위: 곡)

악곡유형 학년		국악						신국악				기타 음악	
		민간음악				문인 음악	궁중 음악	종교 음악	가악	기악 곡	무악		극과 관련 음악
		민간 가악	민간 기악	민간 무악	기예 관련의 음악								
중학교 1~3학년		6	1	2	-	2	5	2	-	2	-	-	9
소계		18						2				9	
총계		29											

위의 표를 보면, 한국 음악교과서의 “감상” 영역에는 29곡의 악곡을 수록했다. 그 중 한국 전통악곡은 20곡이 있는데 “감상” 영역 전체의 68.97%를 차지한다. 국악이 18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90.00%를 차지한다. 신국악은 2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10.00%를 차지한다. 국악에는 민간음악이 9곡이 있는데 국악 전체의 50.00%를 차지하고 문인음악과 종교음악이 각 2곡씩 있는데 국악 전체 각

11.11%를 차지하고 궁중음악이 5곡이 있는데 국악 전체의 27.78%를 차지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전통악곡의 지역 분포 상황은 남도 민요가 2곡이고 경기도 민요가 1곡 있다. 민간가악 음악 상황은 판소리가 3곡이고 민요가 3곡이다.

3. “생활화” 영역

“생활화” 영역에는 일상생활에서 전통음악을 즐기고 한 민족 음악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다(한국 교육과학기술, 2011, p. 9). 세계 다양한 음악에서 한 민족 음악의 위상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한국 교육과학기술, 2011, p. 7). “생활화” 영역은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와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되었다. 구체적으로 중학생들은 한민족 음악과 관련된 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문화재에 있는 민족 음악 유산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한국 교육과학기술, 2011, p. 17).

교과서에서 “생활화” 부분에는 악곡은 16곡이 수록되어있다. 그 중 한국 전통음악과 관련이 있는 악곡이 6곡⁹⁾으로 “생활화” 부분 전체의 37.50%를 차지한다.

4. 기타

교과서에는 『음악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각 영역의 전통음악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림도 있다. 그리고 전통음악에 대한 상식도 있다.

교과서에는 한국 전통음악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교과서 표지와 삽화, 간지로 구성되었다. 한국 미래엔 중학교 음악교과서 표지에는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 표지로 쓰이지 않았다. 교과서에는 668장의 삽화가 사용된다. 그 중 한국 전통음악문화를 가지고 있는 삽화가 253장이 있는데 전체의 37.87%를 차지한다. 90장으로 간지가 사용된다. 한국 전통음악문화를 가지고 있는 간지는 11장만 있는데 전체의 12.22%를 차지한다.

9) 교과서에서 악보나 가사 등 구체적인 음악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국악을 연출한 그림을 보면 교사들이 이 그림을 해석하기 위하여 국악 관련 음향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64쪽에 있는 “궁중음악”과 “판소리”에 대해 그림과 간단한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교사가 이 수업을 준비할 때 관련이 있는 궁중음악과 판소리 음향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교과서에는 음악 상식과 문화를 소개한 내용이 81곳에 나타난다.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상식은 22곳이 되는데 전체의 27.16%를 차지한다.

5. 소결

한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는 181곡의 악곡이 수록되었다. 한국 전통악곡이 57곡이 있는데 전체의 31.49%를 차지한다. 국악이 48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84.21%를 차지하지만 신국악이 9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15.79%를 차지한다. 국악에는 민간음악이 36곡이 있는데 국악 전체의 75.00%를 차지하고 문인음악이 4곡만 있는데 국악 전체의 8.33%를 차지하고 궁중음악이 6곡이 있는데 국악 전체의 12.50%를 차지한다. 종교음악은 2곡이 있는데 국악은 악곡 전체의 4.17%를 차지한다. 그리고 민간음악 중에는 민간 가악 30곡이 있는데 민간음악 전체의 83.33%를 차지하고 민간가악 4곡이 있는데 민간음악 전체의 11.11%를 차지하고 민간무악 2곡만 있는데 민간음악 전체의 5.56%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신국악 중에 가악은 4곡이 있는데 신국악 전체의 44.44%를 차지하고 기악곡은 4곡이 있는데 신국악 전체의 44.44%를 차지한다. 극 종합 음악은 1곡 있는데 신국악 전체의 11.12%를 차지한다. 그래서 위의 통계 수치를 살펴본다면 한국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전통악곡 곡이 전체의 3분의 1수준을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악곡은 국악(84.21%)을 많이 선정했는데 국악은 민간음악(75.00%)을 집중하였다. 민간음악은 민간가악(83.33%)을 많이 편성하였다. 하지만 신국악에는 가악과 기악이 가장 많았다(각 44.44%).

교과서에는 소개한 악기는 98종이며, 한국 전통 악기가 35종이 있다. 이는 전체의 35.71%를 차지한다. 그 중 연주를 배우는 악기는 7종으로 그중 장고와 소금만 두 번 배우고 징과 단소, 북, 팽과리 그리고 가야금 등 악기가 1번만 배웠다.

교과서에는 전통악곡(민요)의 지역 분포 상황은 동도 민요가 5곡(강원도 민요 1곡이고 경상도 민요 4곡)있고, 제주도 민요가 2곡이고 경기도 민요가 6곡이고 남도 민요가 7곡지만 서도 민요가 3곡(황해도 민요 2곡이고 평안도 1곡)만 있었다. 그래서 전통음악 지역 분포는 고르게 분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간가악에는 언급한 악곡 상황이 동요가 3곡이고 판소리가 4곡 그리고 기타 민요는 23곡이다.

Ⅳ. 한·중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 비교 분석

한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한국 전통악곡의 비중이 31.49%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중국 전통악곡이 45.19%를 차지한다. 전통악기 부분에는 한국 교과서에서 35종 전통악기가 있는데 전체의 35.71%를 차지하고 중국 교과서에서 8종 국악기가 있는데 50.00%를 차지한다. 양국 음악교과서는 각국의 음악과정 표준에서 요구한 기준에 부합한다.

양국의 음악교과서에서 나타난 전통음악 내용의 실제적인 양상을 통하여 본 장에서는 감상(음악 감상하기), 가창(노래 부르기), 악기(악기와 그를 연주하기), 창작(음악 만들기)과 기타 다섯 부분으로 동일하여 각 곡 교과서에서 나타난 전통음악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전통음악 분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전통악곡을 전통 성악곡(국악과 신국악을 포함함), 전통 기악곡(국악과 신국악을 포함함), 극 음악(국악과 신국악을 포함함) 그리고 기타의 네 가지로 나눈다.

1. “감상” 부분에 전통음악 내용 비교 분석

1) 전통악곡 유형과 분량 비교 분석

한국 중학교 교과서에 “감상” 부분은 29곡의 악곡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악곡의 16.02%를 차지한다. 그 중 한국 전통악곡이 20곡으로 감상 영역의 68.97%를 차지한다. 국악이 18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90.00%를 차지하고 신국악은 2곡으로 전통악곡 전체의 10.00%를 차지한다. 중국 교과서의 감상영역에서는 133곡의 악곡을 수록하였다. 이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악곡의 74.14%를 차지한다. 그 중 중국 전통악곡은 63곡이 있는데 이는 감상영역 전체의 47.37%를 차지한다. 국악이 45곡이 있는데 이는 전통악곡 전체의 71.43%를 차지한다. 신국악이 18곡이 있다. 이는 전통악곡 전체의 28.57%를 차지한다. 아래의 표는 양국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전통악곡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분량으로 비교한 양상을 제시하였다.

<표 8> 한·중 교과서 “감상” 부분에 전통악곡 유형과 양상 비교표 (단위: 곡)

유형 악곡 유형	한국 중학교 음악교과서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신국악	국악	신국악
전통 성악곡	11 (55.00%)	-	31 (49.21%)	12 (19.05%)
전통 기악곡	4 (20.00%)	2 (10.00%)	6 (9.52%)	5 (7.93%)
극음악	3 (15.00%)	-	8 (12.70%)	1 (1.59%)
기타	-	-	-	-
소계	18 (90.00%)	2 (10.00%)	45 (71.43%)	18 (28.57%)
총계	20 (100.00%)		63 (100.00%)	

위의 표를 보면, 첫 번째, 중국 음악교과서는 한국 음악교과서보다 “감상” 부분의 악곡을 많이 수록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전통악곡의 비중(68.97%)은 중국(47.67%)보다 높다. 그리고 전통음악의 비중을 보면, 양국 교과서들은 국악의 비율(한국의 90.00%, 중국의 71.43%)이 높다. 두 번째, 양국 교과서에는 전통 성악곡의 비율(한국의 55.00%, 중국의 68.26%)이 다 높다. 하지만 중국 교과서에는 신국악이 19.05%를 차지하는데 한국 교과서에서 신국악이 없다. 세 번째, 양국 교과서는 각국의 국악을 많이 수록했다. 특히 전통 성악곡을 많이 수록하였다.

2) 민요 구역 분포 비교 분석

한국 음악교과서의 “감상”부분에서는 민요의 구역 분포 상황은 경기도와 남도 민요만 있으니 전통음악(민요)의 구역 분포가 편중되어있다. 중국 교과서에 민요의 민족 구역 분포 상황은 한족(漢族), 장족(藏族), 허철족(赫哲族), 몽골족(蒙古族), 위구르족(維吾爾族), 카자흐족(哈薩克族), 타타르족(塔塔爾族), 달한이족(達翰爾族), 이족(彝族), 동족(侗族), 조선족(朝鮮族) 그리고 키르기스족(柯爾克孜族) 음악이 있는데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수록한 전통악곡(민요)의 민족 구역도 편중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2. “가창” 부분에 전통음악 내용 비교 분석

1) 전통악곡 유형과 분량 비교 분석

한국 중학교 교과서에 “가창” 부분에서는 84곡의 음악악곡을 수록하였다. 이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악곡의 46.41%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또한 한국 전통악곡이 32곡이 있는데 가창 영역의 38.10%를 차지한다. 국악이 27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84.38%를 차지한다. 신국악이 5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15.62%를 차지한다. 중국 교과서에서는 42곡의 악곡을 수록하였다. 이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악곡의 23.73%를 차지한다. 그 중 중국 전통악곡은 21곡이 있는데 가창부분 전체의 50.00%를 차지한다. 국악이 13곡이 수록됐는데 이는 전통악곡 전체의 61.90%를 차지하며, 신국악이 8곡이 있다. 이 비율은 전통악곡 전체의 38.10%이다. 아래 표는 양국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전통악곡 유형에 따라 분량으로 비교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한·중 교과서 “가창” 부분에 전통악곡 유형과 양상 비교표 (단위: 곡)

악곡 유형	한국 중학교 음악교과서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신국악	국악	신국악
전통 성악곡	27 (84.38%)	4 (12.50%)	10 (47.61%)	8 (38.10%)
전통 기악곡	-	-	-	-
극음악	-	1 (3.12%)	3 (14.29%)	-
기타	-	-	-	-
소계	27 (84.38%)	5 (15.62%)	13 (61.90%)	8 (38.10%)
총계	32 (100.00%)		21 (100.00%)	

위의 표를 보면, 첫 번째, 한국 음악교과서는 중국 음악교과서보다 “가창” 부분의 악곡을 많이 수록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음악교과서는 중국보다 전통악곡의 비중이 적다. 그리고 전통악곡의 종류에 보면, 양국 교과서에는 국악의 비율(한국의 84.38%, 중국의 61.90%)이 높다. 두 번째, 양국 교과서에는 전통 성악곡의 비율(한국의 96.88%, 중국의 85.71%)이 높다. 하지만 중국 교과서에는 신국악(38.10%)은 한국(12.50%)보다 많이 수록되었다. 세 번째, 양국 교과서는 극음악의 비율이 적다.

2) 민요 구역 분포 비교 분석

한국 교과서에는 민요의 구역 분포 상황은 경기도, 남도, 동도, 서도와 제주도 민요가 다 있으니 전통악곡(민요)의 구역을 고르게 분포되었다. 중국 교과서에서 민요의 민족 구역 분포 상황은 한족(漢族), 몽골족(蒙古族), 묘족(苗族), 위구르족(維吾爾族), 장족(藏族), 혁철족(赫哲族), 고산족(高山族) 음악이 있는데 중국 56개

민족이 있으니 교과서에서 전통악곡(민요)의 민족 구역도 편중되어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교과서에 있는 전통악곡(민요)의 구역 분포는 중국 교과서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3. “악기” 부분에 전통음악 내용 비교 분석

1) 전통 악기 종류 비교 분석

한국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98종 악기를 다룬다. 그 중 한국 전통악기가 35종이 있는데 35.71%를 차지한다. 중국 교과서에서 16종 악기를 다룬다. 그 중 중국 전통악기는 8종이 있는데 이는 50.00%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한국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공부하여야 하는 악기가 13종이고 그중 전통악기가 7종이 있으니 전체의 53.85%를 차지한다. 중국 교과서에서 학생들은 공부해야 하는 악기는 클라리넷뿐으로 중국전통악기는 없다. 즉, 중국 교과서에서 다루는 전통 악기의 비율(50.00%)은 한국(35.71%)보다 많지만 연주하는 전통악기가 없다.

2) 연주한 악곡 종류 비교 분석

양국의 교과서에서 악곡을 연주한 부분에는 전통 악곡을 전승한 공통점이 있다. 즉, 전통 악기를 통하여 현대 악곡과 서양 악곡을 연주하는 경우, 서양 악기를 통하여 전통악곡을 연주한 경우가 있다. 아래의 표는 양국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전통음악의 연주를 분량으로 비교한 것이다.

<표 10> 한·중 교과서 “악기” 부분에 전통악곡 유형과 양상 비교표 (단위: 곡)

악곡 유형 \ 유별	한국 중학교 음악교과서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신국악	기타	국악	신국악	기타
전통 성악곡	4 (33.33%)	-	-	1 (100.00%)	-	-
전통 기악곡	4 (33.33%)	2 (16.67%)	-	-	-	-
회곡 음악	-	-	-	-	-	-
기타	-	-	2 (16.67%)	-	-	-
소계	8 (66.66%)	2 (16.67%)	2 (16.67%)	1 (100.00%)	-	-
총계	12 (100.00%)			1 (100.00%)		

위의 표를 보면, 첫 번째, 중국 음악교과서에서는 중국 전통악곡이 1곡만 있는데 한국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전통악곡을 보인다. 그래서 중국 교과서에서 연주 부분에는 전통음악 내용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두 번째, 한국 교과서에서는 국악(66.66%)이 많아서 본국의 국악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창작” 부분에 전통음악 내용 비교 분석

1) 전통악곡 유형과 분량 비교 분석

한국 중학교 교과서에 “창작” 부분에서는 21곡의 악곡을 수록했다. 이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악곡의 11.60%를 차지한다. 한국 전통악곡이 5곡이 있는데 창작 영역의 23.81%를 차지한다. 국악이 4곡이 있는데 전통악곡 전체의 80.00%를 차지한다. 신국악이 1곡이 있는데 이는 전통악곡 전체의 20.00%를 차지한다. 중국 교과서에서는 ‘창작’ 부분에서 7곡의 악곡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악곡의 3.95%를 차지한다. 그 중 중국 전통악곡은 2곡만 있는데 ‘창작’ 부분 전체의 28.57%를 차지한다. 아래 표는 양국 교과서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전통악곡을 유형에 따라 분량으로 비교한 표이다.

<표 11> 한·중 교과서 “창작” 부분에 전통악곡 유형과 양상 비교표 (단위: 곡)

악곡 유형	한국 중학교 음악교과서		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신국악	국악	신국악
전통 성악곡	2 (40.00%)	-	2 (100.00%)	-
전통 기악곡	2 (40.00%)	1 (20.00%)		-
회곡 음악	-	-	-	-
기타	-	-	-	-
소계	4 (80.00%)	1 (20.00%)	2 (100.00%)	-
총계	5 (100.00%)		2 (100.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교과서에서 수록한 전통악곡의 분량은 중국 교과서보다는 많다. 하지만 양국 교과서의 “창작” 영역에서 전통악곡의 비율(한국의 11.60%, 중국의 3.95%)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통악곡 구역 분포 비교 분석

양국 교과서에서 “창작” 영역에는 전통악곡의 분량이 적다, 따라서 악곡의 구역 분포 상황을 논할 수 없다.

5. 기타 부분에 전통음악 내용 비교 분석

1) 시각 예술적인 투명한 전승 비교 분석

그 외 교과서 표지, 삽화, 간지 등 시각 예술적인 측면에서 한국 교과서와 중국 교과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교과서 표지: 한국 교과서 표지에는 한국 전통문화의 요소가 드러난 그림이 없다. 그러나 중국 교과서의 표지에는 중국 전통문화의 요소가 드러난 그림이 4편으로 전체의 66.67%를 차지한다.
- 삽화: 한국 교과서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삽화는 253장이 있는데 전체의 37.87%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국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 교과서에 있는 삽화가 201장이 있다. 이는 전체의 47.07%를 차지한다.
- 간지: 한국 교과서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간지가 11장이 있는데 이는 전체의 12.22%를 차지한다. 중국 교과서에는 중국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간지가 7장이 있다. 이는 전체의 17.95%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중국 교과서는 한국 교과서보다 전통음악을 잘 전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전통음악이론 내용 비교 분석

양국 교과서에서 “감상”, “가창”, “악기” 등 부분을 통하여 전통음악이론을 가르친다. 한국 교과서에는 정간보를 자세히 다루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중국 교과서에서는 궁, 상, 각, 치, 우만 언급한다. 그렇기에 중국 교과서는 전통음악이론 내용이 부족하다.

3) 전통음악 상식 내용 비교 분석

한국 교과서에는 한국 전통음악 상식이 22곳이다. 이는 음악교과서에서 음악에

대한 상식을 다루는 부분의 27.16%를 차지한다. 중국 교과서에는 중국 전통음악 상식이 56곳으로 음악교과서에서 음악에 대한 상식을 다루는 부분의 34.78%를 차지한다. 그렇기에 양국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의 비중이 비슷하다.

V. 맺음말

전통음악을 계승하여 발양하는 문제는 여러 나라 음악교육의 중요한 사명과 책임인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은 현대 교육의 핵심으로 특별하게 여겨진다. 그리하여 학교교육은 전통음악을 잘 전승할 수 있으며, 음악 교과서는 전통음악을 직접적으로 후세에게 전해주는 매개체이다.

본문은 한·중 양국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이는 전통음악을 살펴보려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미래엔에서 출판된 중학교 음악교과서와 중국의 인민음악출판사에서 출판된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비교하여 나타난 양국의 전통음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것이 양국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의 전승 상황을 전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부족하지만, 본 논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교과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하여 양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전통음악을 편성한 결론과 건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음악 과정과 목표에 대하여 중국 음악교과서에서는 감상 부분에 전통악곡의 비중이 75.14%를 차지했지만 한국 음악교과서에서는 16.02%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표현 부분에는 그 양상이 반대로 드러난다. 중국 음악교과서는 전통음악 감상 부분 내용이 많았지만 한국 음악교과서는 전통음악 표현 부분의 비중이 높다. 나아가 중국 음악교과서는 전통음악의 심미적인 체험을 중시하였는데 한국 음악교과서는 전통음악의 실천적인 체험을 중시하였다.

둘째, 감상과 가창 부분에는 한국 국악의 비중이 중국보다 높았고, 한국 중학교 음악교과서에는 한국 국악이 양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나아가 한국 음악교과서는 한국 국악의 체험과 전승을 중시하였다.

셋째, 중국 음악교과서에는 국악에서 민간악곡이 54곡이고 문인음악이 1곡만 있지만 궁중음악과 종교음악이 없다. 하지만 한국 음악교과서에는 국악이 36곡이고 문인음악이 4곡이고 궁중음악이 6곡이며 종교음악이 2곡이다. 그래서 양국 음악교과서에는 민간음악을 중심으로 하지만 문인음악과 궁중음악 그리고 종교음악의 편성 분량이 비교적 부족하다. 특히 중국 음악교과서에는 궁중음악과 종교음악이 없다. 따라서 양국 교과서 모두 다 전통악곡을 폭 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중국 음악교과서에는 소개한 중국 전통악기가 8종이지만 한국 음악교과서에는 35종이다. 그래서 중국 음악교과서는 전통악기를 활용한 내용이 부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통 악기를 공부한 내용 부분에는 중국 전통악기에 대한 연주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양국은 전통 악기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룰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며 크게 전국을 다섯 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 한국 교과서의 전통악곡은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지만 교과서에서 14개 민족의 전통악곡만 보인다. 따라서 중국 교과서에는 전통악곡의 구역 분포에 있어 편중되어있다.

여섯째, 중국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 교과서 표지는 4권이다. 하지만 한국 교과서는 없다. 또한 교과서의 삽화와 간지부분을 본다면 한국 교과서에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연관된 그림이 부족했다.

일곱째, 양국 교과서에서는 전통음악이론 내용이 부족했다. 한국 음악교과서에서 정간보에 대하여 소개한 내용이 있지만 한국의 합자보, 약자보와 오음약보도 있다. 하지만 중국 교과서에서 중국의 구 기보법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렇기에 중국 교과서는 전통음악이론 내용이 부족하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양국 음악교과서를 비교하여 볼 때, 중국 음악교과서는 전통음악을 심미적인 차원에서 다루었는데 비하여 한국 음악교과서는 실천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차이가 있지만 양국 음악교과서는 모두 전통음악을 전승하기 위해 선택된 방편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양국 모두 전통음악 내용을 폭 넓게 활용해야 전통음악의 전면적인 전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교 음악교육에 적당한 동아시아적인 전통음악이론을 활용해야 학생들은 동·서(東·西) 음악이론을 비교 체험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 속에서 우리 음악이론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는 전통음악을 음악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전통문화를 보다 포괄적이고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서양음악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국의 음악 성경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국민의 기본 소양 육성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각자가 모두 모국 음악을 국제사회로 전파하여야겠다는 사명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민 각자가 모두 모국 음악에 대하여 이해하고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느끼게 되며, 국민들의 자부심 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오성 (1999). **한민족음악론**. 서울: 학문사.
- 王耀華, 杜亞雄 (편) (2004). **중국 전통음악 개론**. 복주: 복건 교육 출판사.
- 민경훈, 김신영, 김용희, 방금주, 승윤희, 양종모, 이연경, 임미경, 장기범, 조순이, 주대창, 현경실 (2017). **음악교육학 총론** (제3판). 서울: 학지사.
- 오지선 (2003). **한국근대음악교육: 조선총독부의 음악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예술.
- 변미혜 (2010). 국악 교육의 이해. **제 4회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워크숍 및 연수 자료집**, 8, 41-50.
- _____ (2015). 국악의 이해. **제 9회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워크숍 및 연수 자료집**, 7, 1-19.
- _____ (2014).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수심가토리와 경토리 민요의 지도 내용 고찰. **국악교육연구**, 8(1), 59-82.
- _____ (2011).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중국음악 고찰. **국악교육**, 32, 85-110.
- 권수미 (2012). 예술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음악교육연구**, 41(2), 67-100.
- 孫繼南 (1994). 中國近現代音樂教育史紀年. **성해음악학원학보**, 1, 85-96.
- 範孝翠 (2012). 中韓初中音樂教材分析比較. 석사학위논문, 華中師範大學.
- 金順愛 (2009). 中小學音樂課程的民族性研究. 박사학위논문, 동북사범대학교.
- 張黎紅 (2012). 多元文化背景下的中小學民族音樂教學研究——問題與對策. 박사학위논문, 동북사범대학교.
- 김해나 (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국악 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동혁 (2017).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국악영역 분포조사: 2009 개정 교육과정 17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기범, 임원수, 홍종진, 윤성원, 김경태 (2013). **중학교·음악**. 서울: (주)미래엔.
- 중국 인민음악출판사 (2010~2014). **의무교육교과서·음악 (13~18권, 오선보본)**. 북경: 인민음악출판사.
-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2011).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3.
- 중국 교육부 (2012). **의무교육 음악과정 표준**. 북경사범대학교 출판사.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raditional Music
Passed Down through Textual Analysis of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in South
Korea and China**

Hao, Yonggu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effectively transfer traditional music in school education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contents of traditional music in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published by South Korea's Mirae Publishing House and China's People's Music Publishing Hous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Comparing traditional music curriculum concepts of both countries, Chinese textbooks favor the aesthetic experience of traditional music, while South Korean textbooks are oriented towards the practical musical experience of traditional music. Also, in the appreciation and singing section, South Korean music textbooks emphasize ancient music songs more than Chinese music textbooks. The textbooks of both countries focus on the inheritance of folk music, while literati music, court music, and religious music are relatively inadequate. What is more, there is no court music nor religious music in the Chinese music textbooks. The Chinese music textbooks not only lack content about using traditional instruments in comparison to South Korean textbooks, but also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traditional instruments at all. Also, the traditional music distribution in Chinese textbooks is less prevalent than in South Korean textbooks. However, in comparison to Chinese textbooks, the cover, illustrations and background-images of the South Korean textbooks lack pictures related to traditional culture. Finally, in the textbooks of both countries, we can see a lack of traditional music theory.

Key words: South Korea, China, middle school music textbook, traditional music, inheritance

투고일: 2월 28일, 심사(수정): 4월 7일(4월 12일), 게재확정일: 5월 4일